



지방선거 D-5

전북지역 판세

與 유일한 '텃밭' 전제

도시사 압도적 우세... 기초자치단체장 6~7곳 치열한 경합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 11명 전원 이 열린우리당 소속인데다 정동영 의장의 본거지여서 여당의 핵심 지지기반이자 유일한 '텃밭'으로 꼽힌다.

주 후보, 민주노동당 박정호 후보 등 4명의 후보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안우 후보가 여권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16일 KBS 조사에선 우리당 김 후보가 47.0%, 민주당 정 후보는 17.0%를, 19~21일 조선일보 등의 조사에선 우리당 김 후보가 47.1%, 민주당 정 후보가 15.6%를 각각 기록했다.

◇시장·군수=우리당은 24일 현재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선거구 중 강세지역은 6곳, 약간 우세 5곳, 열세지역은 3곳으로 분류했다.

◇전북도지사=전주시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김안우 후보와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민주당 정경환 후보, 전북도교육감을 역임한 한나라당 문용

라 우리당은 남은 기간 열세 지역에 중앙당 인사와 도당 간부를 대거 투입,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동부산악권 지역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남원과 고창, 부안, 정읍, 김제, 익산, 군산 등 서남부 7개 지역에서 우위 또는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소속 후보들도 선전하고 있다. 여권조사기관인 '더 퍼플'이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읍과 임실에서 무소속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원 법정구속 이해하기 힘들어”

DJ측 최경환 비서관

김대중(DJ) 전 대통령측은 25일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경환 비서관은 이날 “박 전 장관은 이미 2년 가깝게 형을 살고, 자방이 있어 보석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노골적 불만은 최대한 자제했지만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DJ측이 박 전 장관의 법정구속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은 박 전 장관이 대북송금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대북송금특검의 기소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J측은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데 대해서는 “김 전 대통령은 150억 원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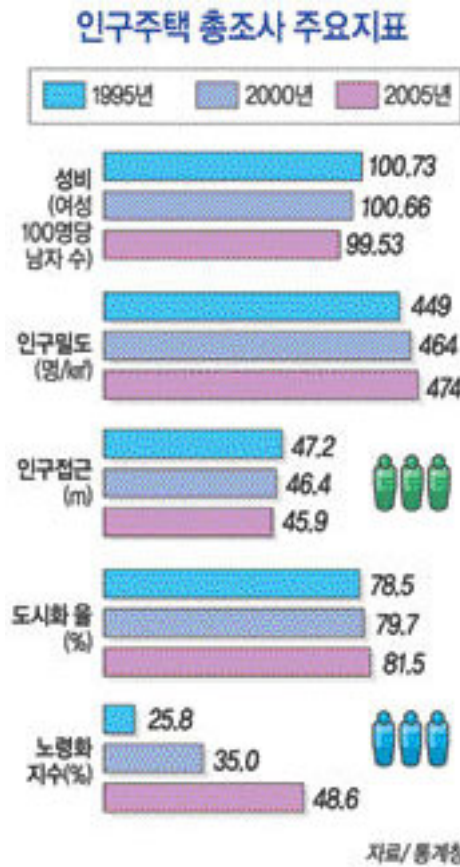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J 자택 경비 25일 오후 서울 동교동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반대 집회를 마친 몇몇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 병력들이 골목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노령화 가속·여초현상 뚜렷

여성 인구가 해방 이후 처음 남성을 추월했고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 10명 중 1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로 가장 높았고 50세 미만은 남초, 50세 이상은 여초현상을 보였다. 동·읍·면별로는 동이나 읍지역은 남녀 수가 비슷하지만 주로 농촌인 면지역은 성비가 96.5로 여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소년 인구 계속 줄어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35.0세로 2000년(32.0세)보다 3세가 많아져 급격한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노인은 436만5천명으로 400만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의 9.3%에 달했지만 0~14세의 유소년은 898만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9.1%에 그쳤다.

유소년 인구는 1970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 29.9%에서 10.8%포인트 감소했으며, 생산가능 인구가 분류되는 청장년(15~64세)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년 부양비는 2000년 10.2에서 2005년 13.0으로 늘었다. 5년 전에는 청장년 9.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05년에는 청장년 7.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20~30대 미혼 비중 상승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53.1%인 2천497만1천명으로 10년전(50.7%)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했다. 3대 종교 중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불교로 1천72만6천명이었고 개신교(861만6천명), 천주교(514만6천명)가 뒤를 이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미혼 비중은 3.0%로 5년 전과 비교할 때 1.1%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미혼 비중이 늘었다.

최근 늦은 결혼과 독신주의 경향을 반영,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미혼 비중이 각각 70.6%와 30.2%에 달해 2000년보다 14.9%포인트와 10.7%포인트 상승했다.

최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갈려죽는 협상은 안해”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25일 “갈려 죽거나, 일반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그런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선호텔에서 마련한 조찬포럼에 참석, “한미 양국간 경제규모 차이가 따라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협상 지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수석대표는 “FTA는 교역 상대국간 특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특례적인 조건을 주고받는 것으로 반드시 양측간 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FTA는) 누군가 강제로 압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사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과 중국에 앞서 한미간 FTA 협상에 나선 것과 관련, “미국은 시장 규모가 엄청 큰 데다

한중일 3국의 미묘한 라이벌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시장을 회피하고 세계시장에 나설 수 없으며 우리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 선진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선 미국이 제1의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아울러 “FTA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저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쁘거나 부인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반대하는 데도 반대하는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outlet' featuring various clothing items and a 60-40% discount offer.

Advertisement for '바다의심' (Sea's Heart) featuring seafood dishes and a '바다의심' logo.